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9)

배 순 덕

천안문(天安門)은 명나라 영락제 때 건설한 자금성의 남쪽문(그 당시의 이름은 承天門)으로 청나라의 세조가 증건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 지금의 '天安門'이 되었고 그 앞에 펼쳐진 사십사만평 방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광장이 천안문광장이다.

천안문은 지나간 중국의 역사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거나 궂은 일이거나를 막론하고 이곳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조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신해혁명 후인 1919년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던 5·4 운동의 진원지였고, 일본패망 후인 1949년 10월에는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그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왕정 하에서의 고달팠던 백성들을 해방하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겠다고며 공산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

고 죽음의 대 초원을 가로질렀던 모택동의 빛나는 혁명의지는, 그러나 집권이후 점차로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황제들이 통치했던 성에서 인민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했던 그도 말년에는 백성 위에 군림했던 옛 황제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깃발이 나무끼는 천안문 문루 위 중앙에는 모주석(毛主席)의 사진이 우뚝 걸려 있고 사진의 오른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왼쪽에는 '세계인민 대단결만세'라는 문구가 견장처럼 붙어 있다.

광장의 동쪽 끝에는 북경원인(北京猿人)에서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이 있고, 서쪽에는 195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인민대회당이 있다. 인민대회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

北京郊외의 明 13陵에 있는
능묘 중의 하나인 지하궁전
정능(定陵)의 출구



사당에 해당되는 곳이다.

일제에의 항거, 모택동이나
주은래 등과같은 역사적 인
물들의 연설, 1976년 4월
청명절에 있었던 1차 천안문
사건, 그리고 1989년 6월 세
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
차 천안문사건 등 격변의 세
월을 보내고도 침묵으로 일
관하는 천안문광장에는 한
가로이 셔터를 눌러대는 관
광객들의 발밑으로 돌바닥에
선명히 드러나 보이는 무수한

탱크자국이 바로 어제같은 유월의 참상을
말해주는 듯했다.

북경시 외곽의 한 조선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랫동안 접해보는 우리식 식사가
다. 북한과 중국당국이 합자하여 문을 연
식당이라고 하는데 된장에 푹고추, 오이를
썰어넣은 냉면, 불고기, 물김치 등이 상에
올라 먹음직스러웠다. 우리와 같은 여행객
이나 외교관, 부유한 고위층의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했고, 한복을 차려입고 안내
를 하는 아가씨들과 우리를 의색해서인지
서울에서 유행되고 있는 귀에 익은 유행
가가 흘러나와서 인상적이었다. 식사 후에

는 다시 북경대학으로 걸음을 옮겼다.

넘실대는 초록빛깔에 둘러싸인 북경대
의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대신에 현대식 건물사이의 고풍스런
옛 건물이 우리를 반겼다. 1898년 도시의
외곽에 설립되었던 京師대학이 북경대학
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1915년이요 지금
위치한 곳으로 옮겨온 것은 1952년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왕족이나 귀족, 고급관리들의
자제 백여명만을 중심으로 공자나 맹자사
상과 같은 봉건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1917년 북경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최

원배 선생이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개혁이 단행되었다. 최선생은 절강성의 봉건 가정에서 태어나 독일에 유학, 서방사상을 수입하여 중국의 전통사상과 결합시켰고 민주과학을 제창한 사람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선생의 영입과 전국적인 학생의 모집, 자유로운 강의, 다양한 사상의 수용으로 학생들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워갔다. 이때부터 자유, 민주를 요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5·4운동의 발발이나 천안문 사태의 주도세력도 모두 북경대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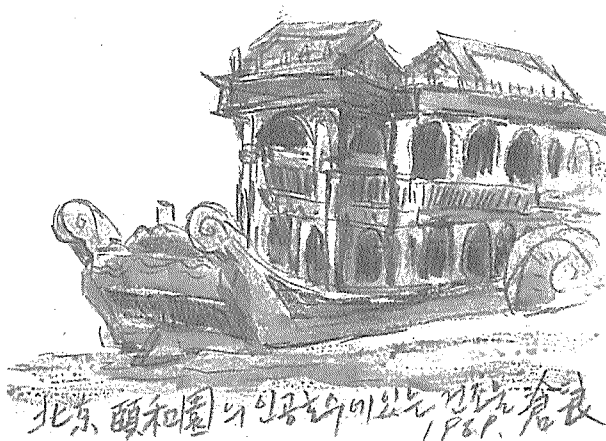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통일시험을 거쳐 선택되어진 만여명의 학생들이 옛 관리들의 저택으로 이루어진 고풍스런 캠퍼스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시내외에는 유적이 참 많다.

몇날을 두고 돌아보아도 다 못 볼 많은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묘지공원인 명의 13陵도 그 중의 하나이다. 북경의 교외 북부 산기슭에 잘 조성된 울창한 수목 사이에 위치한 이 공원에는 명나라 3대조인 영락제부터 최후의 황제인 승정제까지 열세명의 황제가 잠들어 있던 곳이다. 그 능묘 중의 하나가 지하궁전인 정능(定陵)이다.

붉은 담장의 明樓를 반쯤 돌아서면 지하궁전의 입구가 보인다. 고갯길과 같은 입구를 거쳐 계단을 한참 더 내려가면 지하 6~7층 정도 되는 깊이에 한여름에도 으스스 한기가 느껴지는 지하궁전이 펼쳐진다. 높이 3m에 두께가 30cm인 첫번째의 대리석 돌문을 지나면 아치형의 천정에 촘촘한 무늬를 만들며 벽으로 이어져 내린 대리석 돌벽돌과 만나게 되고 역시 대리석으로 탄탄하게 짜여진 두번째 돌문을 지나면 중전

▶
頤和園의 인공 호수에 있는 석조건물



北京 頤和園의 인공 호수에 있는 석조건물
1988. 8. 18. 李承龍

지하궁전을 다 거치다보면,
 중국문화의 거대함과 섬세함에 새삼 감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죽은 후까지도
 황제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과,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무수히 뒤따랐을 백성들의
 희생이 함께 느껴져 온다.

(中殿)이라는 두번째 방이 나온다.

정릉은 원래 전전(前殿), 중전(中殿), 후전(後殿), 좌배전(左配殿), 우배전(右配殿)의 다섯구획으로 나누어 진다. 두번째 방인 중전에는 황제를 포함한 두명의 황후용 옥좌 세개가 놓여 있고 옥좌 앞에는 커다란 거북이 있어 이곳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세번째 문을 지나면 후전이 나온다. 여기에 황제와 두 황후의 유체가 담긴 관이 있다.

後殿에는 죽은 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궁중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해 놓았다. 지하궁전을 다 거치다보면 중국문화의 거대함과 섬세함에 새삼 감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거대함과 섬세함의 이면에는 죽은 후까지도 황제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과 한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무수히 뒤 따랐을 백성들의 희생이 함께 느껴져 온다.

섬섬 삼십도를 웃도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 으스스 몸을 떨며 지하궁전을 빠져나오니 출구 양쪽에 잘 정돈된 기념품점이 즐

비하다. 포장된 우표나 엽서가 많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공예품도 있다.

한참을 더 걸어 나오니 여기저기 노점상들이 손님을 부르기에 바쁘다. 조약해 보이는 형묘인형과 팬더곰, 촌스러운 스카프, 여우털목도리, 나무젓가락, 기념 수건 등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게 헌 책을 파는 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가서 기웃거리려보니 우리나라의 가판대처럼 생긴 조그만 가건물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고 그를 빙 둘러싸고 해적판처럼 인쇄가 조악한 연애소설에서부터 중국공산당 수뇌들의 회담장소인 중남해의 컬러판 사진책, 미술이론 책, 일반교과서, 잡지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책 몇권을 사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뒤적거리는데 일행 중 한명이 혈레벌떡 달려와 덮석 손을 잡아 끈다. 그와 함께 차에 올라서니 모두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또다시 일행을 놓칠 뻔한 것이다. ㉔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